

“창문 열면 自然 ... 화폭 속에서 사는 느낌입니다”



원동석·이정순씨 부부가 미술 작업실에서 화폭에 담긴 그림을 보여 답소를 나누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 해남 원동석·이정순 미술 부부

지난 9일 해남읍에서 승용차로 30분여를 달려 화원면 끝자락에 위치한 매개마을을 찾아갔다. 마을 입구에서 500여 m를 올라가니 이국적인 분위기의 2층 집 두채가 눈에 띄었다. 마당에는 탐스런 열매가 매달린 앵두나무와 알록달록한 꽃들이 심어져 있고, 강아지 두 마리가 꼬리를 흔들며 반겼다.

바로 원동석(70)·이정순(59·여)씨 부부가 살고 있는 전원주택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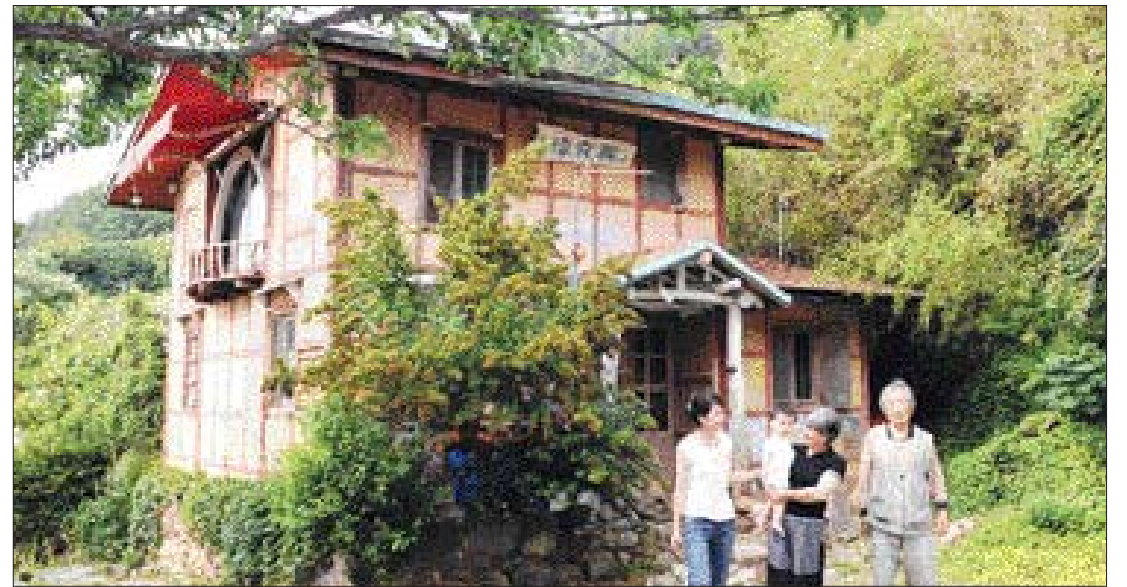
미술화를 전공한 이들 부부는 이곳에서 작은 텃밭도 가꾸고, 마을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원씨는 지난 2004년 목포대 미술학과 교수를 은퇴한 뒤 미술 평론가로, 아내 이씨는 서양화가로 활동하며 제 2의 인생을 즐기고 있는 것.

목포에서 도시의 삶을 꾸려가던 이들 부부는 지난 92년 전원생활을 결심하고, 안도와 진도, 해남을 구석구석 누볐다고 한다. 하지만 마음에 쏙드는 곳은 나타나지 않았다. 다른 지역도 다녀왔으나 결과는 마찬가지. 그러다 만난 곳이 매개마을이다. 지난 93년 어느 봄날 목적이 없이 돌아다니던 이들 부부는 매개마을을 발견하곤, ‘여기다’라는 느낌이 팍 왔다고 했다.

그런 마음이 들만도 했다. 마을 뒤로는 매화가 만발한 조그마한 산이 자리잡고 있고, 앞으로는 쪽빛이 감도는 푸른 바다가 펼쳐져 있었다. 망설임 이유가 없었다. 곧장 임야 300평을 샀고, 미술 전공을 살려 살 집의 설계와 인테리어도 손수 했다.

최대한 주위 환경과 어우러질 수 있도록 집을 짓는 재료는 목재와 황토로 정했다. 매일 아침이면 1시간 거리에 있는 목포로 나와 인부들을 직접 구해와 집을 지었다. 94년 봄에 공사를 시작, 여섯달 뒤에 입주했다.

2년 후에는 별도의 작업 공간을 마련하기 위해 본채 옆에다 2층짜리 쌍둥이 집을 지었다.



원동석·이정순씨 부부가 손자를 안고 며느리 신유희(32)씨와 함께 산책을 즐기고 있다.

/나명주기자 mjna@kwangju.co.kr

임야 300여평 구입 직접 집 설계·인테리어

매개마을 소재 동·서양화 점목 풍경 화폭에

올가을 지역 예술가와 ‘화원 미술축제’ 계획

이들 부부가 이곳에 정착한 뒤 치과 의사 부부와 대 불대 교수 부부 등이 이사를 왔다. 올 3월에는 원씨의 아들 도 이곳에 동지를 틀었다. 아토피를 앓고 있는 14개월 된 아들 때문에 이주를 결심했는데, 두달만에 거의 완치 수준에 이르렀다고 한다.

이씨의 화포도 이곳으로 이사온 뒤 큰 변화를 겪었다. 본래 꽃 등 정물화만 그려왔던 이씨는 요즘은 매개마을을 소재로 서양화와 동양화를 접목시킨 풍경을 화폭에 담아내고 있다.

이씨는 “서양화는 사람이 바라보는 것이고, 동양화

는 사람이 들어가는 것인데, 전원생활 후 이 두 가지를 동시에 담아내는 법을 깨닫게 됐다”면서 “예전에는 그림의 소재를 찾아다니며 그랬지만, 이제는 자연과 함께 호흡할 수 있는 그림을 그리게 돼 너무 행복하다”고 말했다.

남편 원씨는 요즘 동양 예술의 미학을 총체적으로 담아낸 책을 집필 중이다. 오는 7월 출판 기념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한다. 아내 이씨도 같은달 서울에서 작품 전시회를 연다.

이들 부부는 출판기념회와 작품전시회가 끝나면 올 가을쯤 작은 규모로 ‘화원 미술축제’를 열어 볼 생각이 다. 화원지역 폐교에서 그림을 그리는 젊은 예술가들 몇명과 힘을 모아 알찬 예술축제를 꾸며볼 계획인데, 벌써 구체적인 프로그램도 짜졌다고 한다.

“도시의 삶을 접고, 시골로 올 수 있는 삶의 표본이 되고 싶다”는 이들 부부는 “화원면을 자연을 사랑하는 예술가들이 모여사는 예술 마을로 만드는 게 마지막 꿈”이라고 말했다.

/해남=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목포구 등대·청자도요지 등 볼거리 많아

■ 해남 매개마을은

목포와 무안, 진도, 신안지역이 한눈에 들어오는 해남 매개(梅介)마을은 봄이 되면 마을 뒷산에 매화가 만발한다고 해 붙여진 이름이다.

마을 이름처럼 주변 경관이 수려하고 마을 앞에 넓은 바다가 펼쳐진 매개마을은 90년대 후반들어 전원생활을 즐기려는 외지인들에게 큰 인기를 끌고 있다.

마을 주변에는 화원관광단지과 청자도요지 등 관광지 원도 풍부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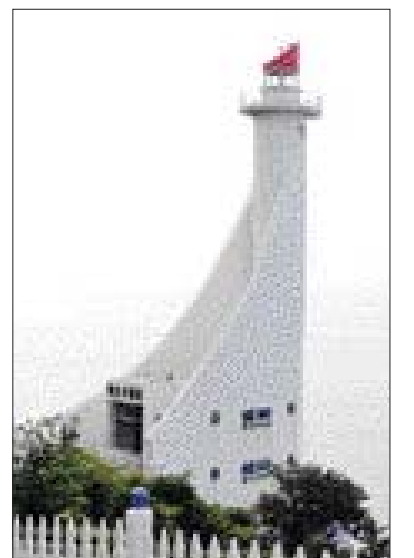
특히 매개마을에서 승용차로 5분 거리에 위치한 ‘목포

구 등대’는 목포와 제주도를 오가는 배들의 길잡이 역할을 하는 곳인데, 바다와 겹쳐지는 등대의 모습은 한폭의 그림을 연상케 한다.

연인들의 데이트 장소로도 제격인 목포구 등대는 ‘제 2의 땅끝’으로 불리는 해남군 화원면 매월리 끝자락에 위치하고 있다.

대한제국 말기인 1908년 1월 무인등대(7.2m)로 설치됐다가 1964년 유인등대로 바뀌었고, 이후 선박의 대형화와 고속화에 따른 등대의 기능이 강화되면서 2003년 12월 선박모양의 등탑(37m)인 현재의 모습으로 탈바꿈했다.

/박진표기자 lucky@kwangju.co.kr



가깝고 편안하고 아름다운 곳!!!
무등산 문화정사
극락전 남골당이 있습니다

선망부모와 당신희 묘지를 누가 관리하십니까?

관: 화성정교를 후원하는 문화사 5층 4부 동 문은 02-281-0100, 02-281-0101, 02-281-0102, 02-281-0103

보람상조와 함께 일 새가족을 모십니다

보람상조